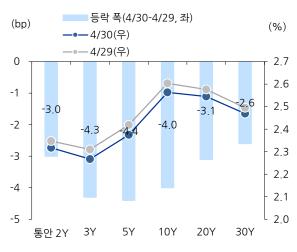
Eugene's FICC Update





Fixed Income (단위: %,bp, 틱)							
		5/1 일	1D	1W	YTD		
국내 채권	한국 국고채 3년물	2.267%	-4.3	-7.0	-32.9		
	한국 국고채 10년물	2.563%	-4.0	-3.5	-29.2		
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,bp)	29.6	29.3	26.1	25.9		
	3년 국채 선물(KTB)	107.86	14.0	18.0	121.0		
	10년 국채선물(LKTB)	121.33	40.0	24.0	441.0		
해외 채권	미국채 2년물	3.702%	9.6	-9.6	-53.8		
	미국채 10년물	4.220%	5.7	-9.8	-35.2		
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,bp)	51.8	55.7	52.0	33.3		
	독일국채 10년물	2.442%	-5.2	-5.8	7.9		
	호주국채 10년물	4.134%	1.9	-8.0	-23.4		
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



국내 채권시장 동향

- 국내 채권시장 강세 마감.
- 미 구인건수, 소비심리 모두 크게 악화된 가운데 무역 적자는 전월비 약 9.6% 증가. 경기침체 우려 속 하락 한 미국채 금리 연동되며 국고채 강세 출발.
- 오후 중 한은 총재, 정책금리가 제로 하한 수준에 근접 하게 된다면 양적완화를 검토할 가능성 시사. 이에 금 리 하방 압력이 가중됨.
- 외국인은 3년, 10년 국채선물을 연중 최고치 수준까지 순매수하였음.

미국 ISM 제조업 지수 동향



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약세 마감
- ISM 제조업지수, 기준선 밑도는 구간에서 시장 예상치 상회. 하위 지수 중 고용지수는 전월비 반등했으며 물 가 지수는 5개월 연속 상승하여 '22년 6월 이후 최고치 기록.
- 국제유가는 대체로 보합권 내 등락하는 흐름을 보였으나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 원유 수출을 차단하겠다는 의사를 보이자 급등해 금리 상방 압력을 높임.
- 금일 미 고용 보고서, 국내 4월 CPI 등 발표 예정.



FX & Commodity (단위:							
		5/1일	1D	1W	YTD		
흰율	원/달러	1,421.00	-1.1%	0.0%	-3.5%		
	달러지수	100.19	0.5%	0.9%	-7.6%		
	달러/유로	1.129	-0.3%	-0.9%	9.1%		
	위안/달러(역외)	7.28	0.1%	-0.2%	-0.8%		
	엔/달러	145.48	1.7%	2.0%	-7.4%		
	달러/파운드	1.328	-0.4%	-0.5%	6.1%		
	헤알/달러	5.67	-0.0%	-0.2%	-8.3%		
상품	WTI 근월물(\$)	59.24	1.8%	-5.7%	-17.4%		
	금 현물(\$)	3,239.05	-1.5%	-3.3%	23.4%		
	구리 3개월물(\$)	9,125.00	-3.3%	-2.7%	4.1%		

달러-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동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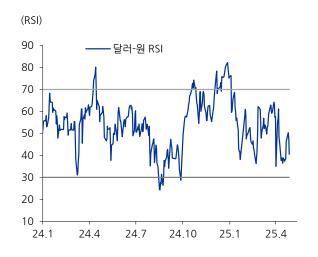
달러-원 환율 및 이동평균선



원달러 환율 동향

- 4/30일 달러-원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-16.30원 급락한 1,421.00원에 마감.
- 전거래일 대비 하락 출발해 오전 중 1,430원 내외에서 등락하던 환율은 점심 이후부터 낙폭을 빠르게 확대. 미국 경제지표 발표를 앞둔 대기 심리에도 월말 네고 물량이 출회되면서 환율을 끌어내렸음.
- 한편 휴장일이었던 전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총 리직 사퇴를 밝혔으며, 최상목 부총리도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사직.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 업무 수 행 예정.

달러-원 환율 상대강도지수



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달러 인덱스는 미국 주요 경제지표를 소화하며 100선 회복.
- 4월 ISM 제조업지수는 48.7로 전월비 하락했으나 시장 예상치(48.0)보다 양호한 모습을 보였음. 산업별 코멘트에서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관세 여파를 우려. 반면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24.1만 건으로 전주 대비+1.8만건 증가. 연속실업급여건수는 191.6만건으로 전주 대비급증.
- 한편 헤싯 백악관 NEC 위원장은 중국과의 진전을 기대하고 있으며, 지난주 중국이 일부 관세를 철회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언급. 미중 갈등 완화 기대되면서 달러 강세 견인.
- 금일 미국 고용 보고서 발표 예정.